	인도네시아(자카르타)통상사무소 해외동향보고서	작성팀	마케팅지원팀
		담당자	하원정 소장 이영훈 대리
		일시	2022.06.21.

CEPA Insight

-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7월 4일까지 사회활동제한조치 1개월 재연장
- 세계 최대 단일국 할랄시장으로 부상, 현지 맞춤형 제품개발 필요

< 2022년 5월 기준 對 인도네시아 교역현황 >

구분	수출액	전년 동월대비 증감율	수입액	전년 동월대비 증감율	무역수지
전국	1,009,587천불	46.8%	1,337,222천불	61.1%	△327,635천불
충남	108,163천불	342.0%	104,313천불	215.0%	3,850천불

※ 출처: 한국무역통계(<http://stat.kita.net/>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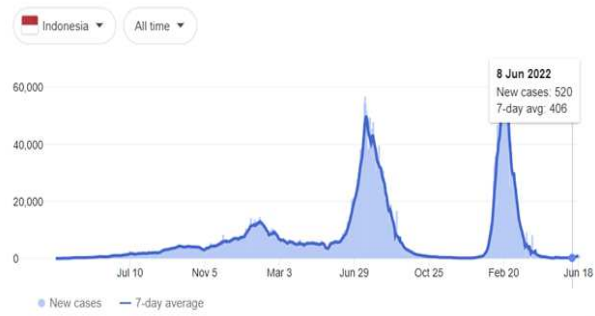
■ 인니, 사회활동제한 1개월 재연장, 그러나 백신접종하면 입국 가능

-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활동제한조치(PPKM)를 7월 4일까지 재연장
 - 현지 코로나19 확진자 폭이 일일 300명대에서 500명대로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, 특히 자카르타에서 확진자 증가세 심각하여 '4차 확산' 조짐이 감지(출처: 한인포스트, 2022.06.13.)
 - 이에 따라, 인니 당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 감소를 위하여 최소 7월 4일까지 사회활동제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(출처: crisis24.garda.com, 2022.06.07.)
- 인니 당국은 6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기준 완화
 - 해외 입국자 대상 백신 접종증명서(2차 또는 3차)가 출발일 기준 14일 이전 접종 시, 격리 및 PCR 결과서 확인 절차 폐지(출처: 한인포스트, 2022.06.13.)

※ 인니 입국 시 여행자 보험증명 폐지(출처:

주인도네시아대사관, 2022.06.09.)

※ 단, 상기 내용은 6월 9일 기준으로 이후 코로나19 현황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대사관 홈페이지와 항공사에서 업데이트된 내용 수시확인 필요



< 2022년 6월 8일, 코로나19 확진자 >

(출처: 주인도네시아대사관, 2022.06.09.)

■ 세계 최대 단일국 할랄시장으로 부상하는 인도네시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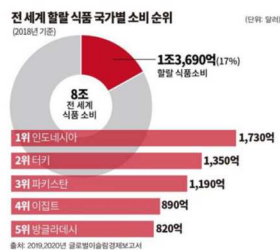
- 인니, 총 인구 증가로 식음료·의약품·화장품 시장 지속 성장(코트라, 2022.05.25.)
- 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 경기가 발전하고 총 인구 또한 증가하면서 식음료, 의약품, 화장품 시장의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
- ※ 시장규모가 가장 큰 제품군은 식음료, 의약품, 화장품 순이며, 최근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14.7%, 5.8%, 12.6% 정도로 나타남



분야	2018	2019	2020	연평균 성장률(2020-25)
식·음료	170.2	173	144	14.7%
금융	82	86	99.2	-
관광	10	11	11.2	19.0%
패션	20	21	16	8.3%
제약	5.2	5	5.4	5.8%
화장품	3.9	4	4	12.6%
미디어·여가	9.6	10	22	9.0%
총합	300.9	310	301.8	-

[자료: Global Islamic Economy Report(소비자 지출 동향), Indonesia Halal Report 2021-2022(연평균 성장률)]

- 특히, 인니 전체 인구(2억 7천 만명) 중 약 87%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을 보유하고 있으며, 향후 성장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(출처: 코트라 해외시장뉴스, 2021.12.30.) ※ 전체 할랄시장 규모는 약 2천억 달러



Food Spending			Pharma Spending			Cosmetics Spending		
Rank	Countries	2018 (USD Billion)	Rank	Countries	2018 (USD Billion)	Rank	Countries	2018 (USD Billion)
1	Indonesia	170	1	Turkey	10.3	1	India	5.4
2	Turkey	127	2	S Arabia	7.5	2	Indonesia	3.9
3	Pakistan	118	3	US	6.8	3	Russia	3.6
4	Egypt	86	4	Indonesia	5.2	4	Turkey	3.4
5	Bangladesh	76	5	Algeria	4	5	Malaysia	3.1

Rank	Countries	2022 (USD Billion)	Rank	Countries	2022 (USD Billion)	Rank	Countries	2022 (USD Billion)
1	Indonesia	146.7	1	Turkey	9.7	1	India	6.3
2	Bangladesh	125.1	2	S Arabia	9	2	Indonesia	4.7
3	Egypt	120.1	3	US	7.9	3	Bangladesh	4
4	Pakistan	87.7	4	Indonesia	5.4	4	Russia	3.7
5	Nigeria	86.2	5	Algeria	3.8	5	Malaysia	3.6

(출처: 글로벌이슬람경제보고서, 2018/2022)

- 인니 정부는 할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 수행 및 2014년 할랄 보장법 제정(출처: 코트라 해외시장뉴스, 2021.12.30.)
- ※ 2014년 할랄 보장법 제정 이후 5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품목별로 할랄 인증 여부를 필수적으로 표기하여야 했으나, 제도 미비로 5년 추가 유예되어 2024년 10월 17일에 식음료 분야부터 본격 시행 예정
- ※ 할랄 생태계육성을 위하여 할랄에 특화된 산업단지(KIH, Kawasan Industri Halal) 개념을 도입하여 식음료, 제약, 화장품, 패션 등에 중점을 두고 원자재 조달부터 최종 제품 생산 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에 더해 할랄 인증 취득까지 중점을 두고 개발 중

■ 동남아 대표 할랄 인증간 경합으로 인하여 할랄장벽 점차 강화

•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이 정부주도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발급 기관도 변경

- 인증 발급기관이 LPPOM MUI에서 BPJPH로 변경되었으며, 주요 이슈 사항은 아래와 같음

- ① 제품 판매 수단 및 판매 과정에서 할랄 제품과 비할랄 제품은 구분되어야 함
- ② 비할랄 제품 판매에 사용되는 판매설비, 설비청소,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설비는 번갈아 사용 불가(출처: 할랄 보장법 2019년 31호 제4장 54 ~ 57)

※ 2014년 10월 17일부터 슈퍼 등 유통매장에 할랄 매대와 비할랄 매대를 구분하여 판매

- ③ 인니로 들어오는 해외 제품은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며 BPJPH(할랄제품보장청)와 할랄 인증서 상호인정에 협력한 해외 할랄기관에서 할랄 인증서를 발급 받은 할랄 제품은 할랄 인증서를 신청할 필요 없음

※ 현재 한국 내 공식적인 인증기관은 없으나 2022년 6월 기준 KMF와 BPJPH간 협의 중

■ 인니 내 할랄 인식 확산으로 이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 필요

• 무슬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현지 소비자 맞춤형 제품개발 필요

- 아직까지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 획득이 의무는 아니나, 무슬림 인구가 87%를 차지하고 그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만큼 할랄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

- 또한, 할랄 인증과 관계없이 제품 성분표를 면밀히 따져가며 할랄 유무를 살핀 다음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지 소비자의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제품 개발이 필수

※ 할랄 인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람 성분(무슬림에서 금지하는 것으로써, 돼지 및 알코올 성분 등)을 넣지 않은 제품을 인도네시아 시장에 유통하는 것이 바람직함

- 따라서, 철저한 현지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언어, 문화, 생활방식 등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이 우선되어야 하며, 이후 할랄 인증 취득을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. 끝.